

강원도 관광

일정 및 코스 안내

7월 7일(월) ~ 7월 10일(목)			
1코스 에너지·테크니컬 투어	2코스 평창 중심 역사·문화 탐방	3코스 산행 및 자연 체험 코스	4코스 알펜시아 주변 명소 투어
알펜시아 출발 (09:00)	알펜시아 출발 (09:00)	알펜시아 출발 (09:00)	알펜시아 출발 (09:00)
	2-① 평창 코스		4-① 코스
평창 대관령 풍력 발전단지 (09:40~10:30)	월정사 (09:40~10:40)	오대산 비로봉 등반 또는 전나무숲길 트레킹 (10:00~13:00)	이효석문학관 (09:30~10:00)
	평창효석문화마을 (11:10~12:10)		봉평 메밀꽃길 & 전통시장 (10:10~11:10)
	2-② 강릉 코스		진부시장 (11:30~12:10)
평창 수소에너지 체험관 (11:10~12:00)	경포대 (10:20~11:00)	대관령 옛길 (09:30~10:50) 및 양떼목장 트레킹 (11:00~12:30)	평창전통장류마을 체험 (12:30~13:30)
	오죽헌 (11:10~11:50)		4-② 코스
	선교장 (12:00~13:00)		알펜시아 출발 (09:00)
강릉 솔향수목원 내 태양광 전시존 (12:30~13:20)	2-③ 정선 코스	평창 백룡동굴 (10:30~11:50) 및 청옥산 생태탐방 (12:10~13:30)	대관령 한우마을 (09:30~10:10)
	정선 아리랑박물관 (10:30~11:10)		황태회관 (10:30~11:10)
	아우라지 (11:30~12:10)		대관령 하늘목장 (11:20~12:30)
	정선시장 (12:30~13:20)		발왕산 케이블카 체험 (12:40~13:30)

알펜시아(강원도 평창) 주변 명소 안내

• 대관령 양떼목장

대관령 고지대 초원에 위치한 양떼목장은 귀여운 양들과 함께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. 목장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강원도의 청량한 공기와 탁 트인 풍경이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. 겨울에는 설원 위를 걷는 이색적인 체험도 가능해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.

• 알펜시아 스키점프대

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경기가 열렸던 곳으로, 전망대에 오르면 평창의 장관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.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스릴도 느낄 수 있고, 내부 체험관에서는 스키점프에 대한 정보와 실제 장비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야경 명소로도 알려져 있어 해질 무렵 방문도 추천됩니다.

• 월정사 전나무숲길

오대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 월정사와 그 앞을 따라 이어지는 전나무숲길은 평온한 산책과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. 수령 80년 이상의 전나무가 1km 넘게 줄지어 있는 풍경은 사진으로도 유명하며, 산림욕 코스로도 손꼽힙니다. 사찰 관람과 함께 조용한 명상 시간을 갖기에 좋습니다.

• 알파인 코스터

산악 지형을 따라 설치된 트랙을 카트를 타고 달리는 체험형 놀이시설로,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.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산속을 가로지르는 트랙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철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상쾌함이 배가됩니다.

• 대관령 하늘목장

넓은 초지와 풍력발전기, 방목된 젖소와 양 떼가 어우러지는 이 목장은 자연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. 트랙터 마차 타기, 우유짜기 체험, 건초주기 등의 다양한 체험도 가능합니다.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매우 인기 있으며, 드라마·광고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합니다.

• 발왕산 케이블카

용평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이 케이블카는 해발 1,458m 발왕산 정상까지 약 20분간 운행됩니다. 정상에서는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웅장한 풍경과 함께 스카이 워크, 전망카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운행 중에는 사계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자연 관광 코스로도 훌륭합니다.

• 이효석문학관 & 봉평 메밀꽃밭

소설 『메밀꽃 필 무렵』의 작가 이효석을 기리는 문학관으로, 봉평의 역사와 문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. 근처에는 실제 메밀꽃밭이 조성되어 8~9월경 순백의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. 봉평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 먹거리 체험도 가능해 여행 만족도를 높여줍니다.